



PORSCHE



포르쉐 2017 상하이 모터쇼

프레스킷

목차

포르쉐, 2017 상하이 모터쇼 참가

파나메라 3종, 차이나 프리미어로 공개 4

실용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스포츠카 라인업: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4

918 스파이더 콘셉트 적용: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5

새로운 중국 시장 전용 모델: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5

더욱 강력한 파워: 신형 포르쉐 911 GTS 모델 5

지속적인 성장: 중국에서의 포르쉐 6

새로운 포르쉐 클럽 차이나와 아시아 태평양 포르쉐 모터스포츠의 시작 6

포르쉐 파나메라, 또 하나의 새로운 얼굴

2017 상하이 모터쇼 아시아 프리미어: 스포츠 투리스모 출시로 파나메라 라인업 강화 8

올라운드 스포츠카로서의 디자인과 콘셉트 8

세그먼트 최초로 적용된, 확장 가능한 루프 스포일러 9

3개 시트로 새롭게 디자인된 뒷 좌석 9

가장 강력한 파나메라, 아시아 출시

지속적인 퍼포먼스와 넓은 적재 공간: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11

V8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독특한 주행 콘셉트 11

스포츠카 성능, 장거리 주行的 편안함, 효율성 3가지 요소의 조화 12

폭넓게 제공되는 기본 사양 패키지 12

목차

전 세계 최초의 롱 휠 베이스 버전의 럭셔리 세단 중국 전용 모델: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13
하이엔드 태블릿을 갖춘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14
더욱 강력해진 신형 모델 출시로 포르쉐 911 라인업 강화 역동성, 편안함, 연비 효율까지 갖춘 신형 포르쉐 911 GTS 모델	15
보다 향상된 퍼포먼스를 위한 강력한 파워	15
911 GTS를 상징하는 블랙 컬러 요소	15
새로워진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과 고품격 인테리어 장비	16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레이싱카 신모델 출시 가장 진보된 신형 911 GT3 컵	17
연료 소비 및 배출	19

04/2017

포르쉐, 2017 상하이 모터쇼 참가

파나메라 3종, 차이나 프리미어로 공개

상하이. 포르쉐는 2017 상하이 모터쇼(4/19-28)에서 3종의 새로운 4도어 스포츠카를 중국 최초로 선보이며 파나메라 라인업을 확장한다. 특히,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의 아시아 출시가 주요 관심사다. 한층 더 새로워진 차체의 변화는 동일 세그먼트에서 볼 수 없었던 우아한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으로 스포츠카와 럭셔리 세단을 혁신적으로 결합했다.

아시아 시장에 최초 선보이는 두 번째 신차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는 그란 투리스모 라인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로 680마력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이브리드 세단이다. 특히 이 모델은 배출가스 없이 단거리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한 동시에, 고성능 스포츠카의 역동적인 드라이빙까지 제공한다.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는 중국 시장을 위해 독점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911 GT3 컵의 아시아 지역 론칭은 포르쉐 원 메이크 시리즈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엄격한 경량 구조 덕분에, 최고 출력 485마력(357kW)의 4기통 수평대향 엔진을 탑재한 레이싱카의 무게는 1,200kg에 불과하다. 또한, 새로운 911 GTS 모델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실용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스포츠카 라인업: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그란 투리스모의 철학을 재해석한 모델이다. 포르쉐의 전통적인 디자인 DNA를 반영한 새로운 4도어 모델은 넓은 테일게이트를 장착해 공간 활용성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쿠페 스타일 스포츠 세단에 비해 더욱 곧게 뻗은 B 필러와 루프 라인으로 품격 있고 우아한 외형을 완성했으며, 승객과 짐(4+1 seating concept)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갖췄다. 또한, 더욱 커진 전자식 테일게이트로 부피가 큰 스포츠 장비 및 여행용 짐들을 보다 쉽게 실을 수 있다. 반면에, 두 바디 라인들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어 그란 투리스모의 스포츠카의 특징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의 중국 시장 출시는 2017년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출시 라인업은 '파나메라 4',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및 '파나메라 터보' 모델이다.

918 스파이더 콘셉트 적용: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포르쉐 918 스파이더는 강력한 V8 엔진과 높은 토크의 일렉트릭 드라이브 결합으로 2013년 뉘르부르크링(Nürburgring) 서킷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슈퍼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모델이 918 스파이더의 콘셉트를 차용,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이브리드 세단의 자리를 차지했다. 파나메라 라인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롱 휠 베이스 버전의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중국 시장 전용으로 2017년 10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550마력(404kW)의 8기통 엔진과 136 마력(100kW)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의 평균 연료 소비량(NEDC 기준)은 2.9 l/100 km이며, 전기 소비량은 16.2 kWh/100km이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 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3.5초로 탑클래스 스포츠카 수준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또한, 완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만으로 NEDC 기준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상의 기술력이 적용된 파나메라 새시는 스포츠카의 다이내믹한 코너링과 럭셔리 세단의 편안함을 지원하며 다양한 세그먼트로의 확장을 이뤄냈다. 포르쉐는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전기차가 최고의 스포츠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새로운 중국 시장 전용 모델: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가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중국 시장 전용으로 출시되는 이 새로운 스포츠 세단은 더 길어진 휠베이스(150mm 증가)와 후륜 구동의 방식이 특징이다. 최고 출력 330마력(243kW)의 3리터 V6 터보 엔진을 탑재한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는 중국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가격과 함께 롱 휠 베이스 파나메라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모델은 2017년 10월 출시 예정이다.

더욱 강력한 파워: 신형 포르쉐 911 GTS 모델

더 강력한 파워의 911 모델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포르쉐는 신형 '911 GTS' 스포츠카 5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GTS 모델의 또 다른 역사를 쓴다. 신형 모델에는 후륜 구동 또는 사륜 구동의 쿠페와 카브리올레 그리고 911 타르가 4 GTS가 포함된다. 모든 모델은 최대 450마력(331 kW) 출력이 가능한 향상된 엔진을 탑재했으며, 사륜 구동 모델의 넓은 차체,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 스포츠 새시와 특별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새롭게 개발된 3리터 6기통 터보 차저 엔진은 기존 911 카레라 및 타르가 S 모델에 비해

30마력(22 kW)까지 파워가 증가했다. 낮은 프론트 스포일러와 높아진 리어 스포일러는 기존 카레라 S 모델과 비교해 차의 전후방 차축에 가해지는 양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신형 모델들의 독특한 외형은 블랙 디자인 요소들, 블랙 실크 광택 마감의 센트럴 락이 장착된 20인치 휠, 도어 부분의 GTS 로고로 더욱 부각된다.

지속적인 성장: 중국에서의 포르쉐

포르쉐는 중국에서 고속 성장하고 있다. 2016년, 포르쉐는 65,246대의 차량을 인도하며 전년 대비 12%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로써 중국은 포르쉐에게 2년 연속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911 모델 판매량은 연간 11% 이상 성장하며 911의 전설을 이어갔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4기통 수평대향 터보 차저 엔진의 신형 718 박스터와 718 카이맨의 경우, 총 1,300대 이상의 차량 인도 수를 기록,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로서의 포르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SUV 세그먼트에서는 마칸과 카이엔이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다. 34,000대 이상 인도된 마칸은 연간 22% 성장률을 기록하며, 포르쉐 베스트 셀링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카이엔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5.5% 증가했다. 올해의 하이라이트는 스포츠카 성능과 럭셔리 세단의 편안함을 결합한 신형 파나메라 출시다.

새로운 포르쉐 클럽 차이나와 아시아 태평양 포르쉐 모터스포츠의 시작

포르쉐 클럽 차이나 설립과 함께 포르쉐는 아시아 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드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포르쉐 차이나는 2017 상하이 모터쇼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포르쉐 클럽 차이나를 운영하게 된다. 클럽은 현재 2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존 지역 협회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멤버십 회원들에게 국제 포르쉐 행사 및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카레라 컵 아시아와 같은 독점 행사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포르쉐에게 모터스포츠는 제품 개발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포르쉐 카레라 컵 아시아는 이미 15년 동안 많은 팀과 관객들을 매료시켜 왔다. 2016년, 원-메이크 시리즈에는 5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트랙을 방문했으며, 135개 이상의 국가에서 150만 명 이상이 스크린을 통해 관람했다. 올해는 10개국에서 25명의 선수 선발이 기대된다. 포르쉐는 포르쉐 모터스포츠 아시아 태평양 설립을 통해 아시아 고객들의 갈수록 커지고 있는 GT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상하이의 신규 모터스포츠 센터는 GT 모델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모터 스포츠 고객들이 만나는 접점일 될 것이다. 고객전용 테스트 그라운드도 될

아시아 최초의 포르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FIA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는 상하이 국제 서킷 (SIC)의 F1 레이스 트랙 옆에 건설 중이다. 포르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테스트 트랙, 오프로드 코스 및 트레이닝 룸 등을 포함해 전체 100,000 평방미터 규모로 2018년 봄에 개장할 예정이다.

포르쉐 파나메라, 또 하나의 새로운 얼굴

2017 상하이 모터쇼 아시아 프리미어: 스포츠 투리스모 출시로 파나메라 라인업 강화

포르쉐는 2017 상하이 모터쇼에서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Panamera Sport Turismo)'를 아시아 프리미어로 선보이며 파나메라 라인업을 강화한다. 불과 몇 주 전 제네바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 바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파나메라 4',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4개 라인업이 출시된다.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포르쉐의 성공적인 스포츠 세단을 기반으로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럭셔리 세그먼트에 또 한번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모델이다. 최고 출력 550마력(404kW)의 스포츠 투리스모는 동급 최고 수준의 실용성을 갖췄다. 대형 테일 게이트와 낮은 로딩 엣지(loading edge), 넓은 트렁크 공간, 4+1 시팅 컨셉트 등을 통해 차량의 다재 다능함을 극대화, 생활에서의 실용성과 활용성을 모두 갖췄다.

특히,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지난 해 출시된 신형 파나메라의 기술 및 디자인적 혁신 요소들을 모두 반영해, 기존 포르쉐의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그먼트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 스포츠 투리스모에는 디지털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Porsche Advanced Cockpit), 리어 액슬 스티어링을 포함한 새시 시스템,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PDCC Sport), 전자식 롤 스태빌라이제이션 및 강력하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 지원된다. 또한, 모든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차량에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멀티 플레이트 클러치와 함께 최적의 동력을 전달하는 사륜구동 시스템인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를 장착했으며, 4 E-하이브리드, S, 터보 모델에는 3챔버 기술을 적용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adaptive air suspension)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올라운드 스포츠카로서의 디자인과 콘셉트

스포츠 투리스모는 쿠페 스타일의 파나메라 스포츠 세단처럼 포르쉐 디자인 DNA를 완벽하게 반영한 다이내믹한 포로포션을 가졌다. 차체 길이는 5,049mm, 높이 1,428mm, 폭 1,937mm이며, 확장된 휠베이스는 2,950mm로 늘어났다. 짧은 차체 오버행(overhang)과 21인치의 큰 휠이 만드는 실루엣도 특징적이다.

스포츠 투리스모의 B-필러, 즉 리어 도어 부분부터 시작되는 후면 디자인은 유니크한 특성을 보여준다. 두드러진 숄더 라인 위로 길게 뻗은 윈도우 라인과 루프 윤곽은 차량의 두드러진 외형을 완성한다. 리어 부분에서는 D-필러가 윈도우 라인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는 돌보이는 루프 라인을 통해 쿠페같은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숄더 섹션이 나타난다.

세그먼트 최초로 적용된, 확장 가능한 루프 스포일러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의 루프는 스포일러까지 이어진다. 주행 상황 및 차량 설정에 따라 총 세 단계의 각도로 변화하는 루프 스포일러(roof spoiler)는 리어 액슬(rear axle) 부분에 가해지는 다운포스를 최대 50kg까지 감소시킨다. 시속 170km까지는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PAA, Porsche Active Aerodynamics)의 중앙 시스템인 에어로다이내믹 가이드가 작용해 스포일러가 마이너스 7도의 각도로 유지되며, 이를 통해 공기저항은 줄이는 동시에 연비 효율성은 높인다.

170km 이상의 속도에서 루프 스포일러는 자동으로 1도 각도를 유지, 퍼포먼스 포지션으로 자동 변경되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스포츠 및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주행 시 시속 90 km/h 이상에서 퍼포먼스 포지션으로 자동 변경된다. 이 밖에도 포르쉐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PAA)은 슬라이딩 루프가 열린 상태로 시속이 90 km를 넘을 경우, 루프 스포일러의 각도를 26도로 자동 조절해 윈드 노이즈를 최소화한다.

3개 시트로 새롭게 디자인된 뒷 좌석

신형 스포츠 투리스모는 뒷 좌석이 3개 시트로 구성된 첫 번째 파나메라 모델이다. 스포티한 퍼포먼스와 극대화된 승차감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형태를 지닌 바깥쪽의 두 개의 시트와 함께 2+1 의 시트 배치 형태를 갖췄다.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또한 리어 부분의 전기 기반 제어식 독립 시트 2개를 포함한 4개 시트 배치 형태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루프 라인이 높아져 뒷 좌석의 승하차가 한층 수월해졌으며 머리와 루프 사이의 간격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넓은 전동식 오프닝 테일게이트와 높이 628mm의 로딩 엣지를 통해 트렁크 공간은 실용성을 강조했다. 스포츠 투리스모의 적재공간은 최대 520리터(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425 리터)로 기존 스포츠 세단 모델보다 20 리터 더 크다. 리어 시트를 접은 상태에서 짐을 실었을 경우, 약 50 리터 정도의 추가 공간 확보도 가능하다.

뒷 좌석 리어 시트 3개의 등받이는 모두 한꺼번에 또는 개별적(40:20:40 스플리트)으로 접을 수 있으며, 트렁크 공간까지 전동식 조절이 가능하다. 모든 등받이가 접힌 상태에서는 적재 공간이 1,390 리터로 증가한다.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1,295 리터)

이 밖에도,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러기지 컴파트먼트 매니지먼트 (luggage compartment management) 시스템을 제공한다. 트렁크 바닥에 설치된 2개의 레일, 4개의 래싱 포인트(lashing point) 및 파티션 네트 등을 포함해 안전한 운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230볼트 전자소켓도 옵션 사양으로 이용 가능하다.

가장 강력한 파나메라, 아시아 출시

지속적인 퍼포먼스와 넓은 적재 공간: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포르쉐가 2017 상하이 모터쇼에서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를 공개한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포르쉐가 스포츠카 제조사로서 최초 선보이는 플래그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전기 모터와 결합된 파나메라 터보의 4리터 V8 엔진은 680마력(500kW)의 출력으로 더욱 강력한 파워를 전달한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는 공회전 속도보다 조금 높은 속도에서도 이상적인 86.67kg.m의 최대토크를 자랑한다. 중국 시장에서만 공개되는 파나메라 롱 휠 베이스 이그제큐티브 플래그십 모델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3.5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310km/h에 이른다. 특히, 918 스파이더 슈퍼 스포츠카로부터 계승한 부스트 전략(Boost Strategy)으로 파워풀한 가속력을 발휘한다. 연비는 유럽 NEDC 기준 2.9l/100km이며, 연료 소비 없이 전기 모터로만 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V8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독특한 주행 콘셉트

V6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신형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포르쉐는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기술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신형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136 마력(100kW)의 전기 모터와 550마력(404kW)의 V8 엔진을 결합했다. 하이브리드는 136 마력(100kW)의 전기 모터와 550마력(404kW)의 V8 엔진을 결합했다. 포르쉐 하이브리드 모듈의 디커플러(Decoupler)는 기존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이 전자 클러치 액추에이터(ECA)에 의해 전기기계식으로 작동해 반응시간을 단축시킨다. 2세대 파나메라의 다른 모델들처럼 빠른 변속이 가능한 8단 포르쉐 듀얼 클러치(PDK)가 장착되며, 주행상황에 따라 전·후륜에 구동력을 배분하는 사륜 구동 시스템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에 파워를 전달한다. E-퍼포먼스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 3.5초만에 100km/h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더욱 높은 속도에서도 탁월한 견인력을 발휘한다. 최고 속도 310km/h와 함께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동급 클래스의 기준을 한층 높였다. 이 밖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럭셔리 세단의 편안함과 스포츠카 수준의 성능이 조화를 이뤄 포르쉐만의 특별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

전기 모터는 에너지 전력 14.1 kWh의 액체냉각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파워를 공급받는다. 뒷 부분에 장착된 고압배터리는 230-V, 10-A 에서 6시간 안에 완충된다. 파나메라 모델 표준형 3.6 kW 충전기 대신 옵션형 7.2 kW 충전기와 230-V, 32-A 커넥션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완충 시간은 2시간 24분에 불과하다. 충전 프로세스는 PCM 또는 포르쉐 카 커넥트 앱(스마트폰과 애플워치 용)의 타이머를 통해서도 시작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파나메라4 E-하이브리드에는 보조 에어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충전 중에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스포츠카 성능,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 효율성 3가지 요소의 조화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탁월한 퍼포먼스와 편안함 그리고 효율성의 3가지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순수 전기모드인 "E-파워" 모드로 시동되며, 연료 소비 없이 전기 모터로만 NEDC 기준 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가속페달에 대한 압력이 일정수준을 넘거나 전기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최소 지점 밑으로 떨어질 경우,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파워간의 동력을 자동적으로 바꾸고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로 전환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2.9l/100km(유럽 NEDC기준), CO₂ 배출량은 66g/km(고급 휘발유 기준)이며, 전기모드 가동 시 16.2 kWh/100 km 이다.

폭넓게 제공되는 기본 사양 패키지

150mm의 확장된 휠 베이스의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중국에서만 독점 판매된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기본 사양으로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PCCB),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 스포츠(PDCC Sport),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PTV Plus),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Power Steering Plus), 911 터보 디자인의 21인치 알로이 휠이 포함된다. 또한, 보조 에어 컨디셔너,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과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가 포함된 세 개의 에어 챔버 서스펜션이 기본 패키지로 제공된다.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는 중국 시장에 2017년 10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전 세계 최초의 롱 휠 베이스 버전의 럭셔리 세단

중국 전용 모델: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포르쉐는 2017 상하이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되는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더 길어진 휠 베이스 (150mm 증가)와 후륜 구동의 방식의 새로운 스포츠 세단으로, 2017년 10월부터 중국 시장 전용으로 출시된다. 신형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엔 330마력 (243-kW) 의 3리터 V6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 포르쉐는 광범위한 맞춤형 표준 장비를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르쉐의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들은 작고 우아한 장식 요소들이 특징이다. 측면의 도어 실의 고광택 실버 스트립은 프론트 윙의 에어 아울렛 트림과 잘 어우러지고, 에어 인테이크의 고광택 은색 장식용 스트립은 전면 디자인을 완성한다. 중국 전용 신형 파나메라는 C 필러에 "이그제큐티브(Executive)" 로고를 실버 컬러로 각인해하여 이그제큐티브 모델만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투명한 파노라마 루프는 모든 롱 휠 베이스 파나메라 모델의 기본 사양이다. 길이 1,780mm, 폭 1,200mm에 이르는 루프는 이제까지 포르쉐 모델에 탑재된 것 중 가장 크다. 루프 전면은 들어 올리거나 또는 완전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 시 두 개의 실내 블라인드로 가릴 수도 있다.

4개의 이그제큐티브 모델 모두에는 3챔버 기술을 적용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가 포함된다. 확장 기본 사양 패키지는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전동 조절 컴포트 시트와 뒷좌석의 컴포트 헤드레스트, 앞 뒤 히팅시트, 뒷좌석 헤드레스트 뒤에 설치된 전동식 롤업 선블라인드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모든 좌석에는 마사지 기능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5가지 마사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각 등받이의 10개의 에어 쿠션은 버튼 하나로 조절 가능하며, 5단계의 강도 중 하나를 선택해 더욱 편안한 마사지를 제공한다. 또한, 기본사양으로 제공되는 뒷좌석의 사이드 에어백은 높은 안전성을 자랑한다. 한편,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대형 센터 콘솔은 추가 스마트폰 슬롯과 인덕티브 안테나 인터페이스 (inductive antenna interface)가 적용되어 있다. 센터 콘솔은 옵션으로 주문 가능하다.

하이엔드 태블릿을 갖춘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뒷좌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옵션사양인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RSE)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를 쇼퍼 차량(chauffeur saloons)으로 이용한다면,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의 뛰어난 커넥티비티는 뒷좌석을 금세 하이테크 업무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또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의 옵션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는 두 개의 10.1인치 터치스크린이 있다. 고해상도 무반사 스크린(1,920 × 1,200 픽셀)은 앞 좌석 백레스트에 부착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분리하여 차량 외부에서도 태블릿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파나메라의 실내 인테리어와 어울리도록 강한 내구성과 고품질 디자인을 갖춘 기능성 태블릿 PC 2대가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파나메라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32GB의 플래시 메모리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마이크로 SD카드를 통해 용량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에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영상 통화 및 채팅도 가능하다. 사운드는 터치스크린에 장착된 스피커나, 차량 사운드 시스템 또는 포르쉐 블루투스® 헤드폰(Porsche Bluetooth® headphones)에 의해 재생 가능하다.

다양한 디지털 소스 사용도 가능하다. SD카드, 쥬크 박스, CD/DVD 드라이브 및 USB 드라이브를 통해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에 접속 할 수 있다. 또한, 뒷좌석 승객들은 라디오 그리고 TV튜너(옵션사양)도 조작할 수 있다. 차량 정보 또한 시스템에 표시되며, 현재 운전 경로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포르쉐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는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목적지를 입력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더욱 강력해진 신형 모델 출시로 포르쉐 911 라인업 강화

역동성, 편안함, 연비 효율까지 갖춘 신형 포르쉐 911 GTS 모델

상하이. 포르쉐는 신형 GTS 모델을 2017 상하이 모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며 911 제품 라인업을 확장한다. 신형 GTS 모델은 후륜구동 911 카레라 GTS(쿠페, 카브리올레), 사륜구동인 911 카레라 4 GTS(쿠페, 카브리올레), 그리고 역시 사륜구동인 911 타르가 4 GTS이다. 새로운 3.0리터 6기통 수평대향 엔진의 터보차저는 신형 GTS는 기존 911 카레라 S 모델 대비 30마력, 자연흡기 엔진의 GTS 모델보다는 20마력(15kW)이 증가한 450 마력의 최고 출력을 자랑한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GTS 모델에는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다.

보다 향상된 퍼포먼스를 위한 강력한 파워

최대토크 56.1kg.m (2,150 - 5,000 rpm)의 포르쉐 911 GTS 모델은 더욱 향상된 가속력과 탄력적인 주행 성능을 갖췄다. 모든 GTS 모델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특히, GTS 쿠페의 경우 PASM 스포츠 새시 설계를 통해 바디를 10mm 이상 낮췄다. 포르쉐 더블 클러치(PDK)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기본 탑재한 '911 카레라 4 GTS 쿠페'는 포르쉐 911 라인업 중 가장 빠른 모델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3.6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모든 GTS 모델의 최고 속도는 300km/h 이상이다. GTS 모델의 성능은 더욱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연비를 제공한다. 포르쉐 더블 클러치를 탑재한 911 카레라 GTS 모델의 연비는 8.3l/100km(유럽 NEDC기준)이며, CO₂ 배출량은 188g/km이다.

911 GTS를 상징하는 블랙 컬러 요소

911 라인업 중 GTS 모델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후륜 구동 모델을 포함한 모든 GTS 라인업은 1,852mm 와이드 사륜 구동 새시를 적용했다. 새로운 스포츠 디자인 프론트 에이프런은 스포티한 인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론트 엔드는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되었다. 낮은 프론트 스포일러와 높아진 리어 스포일러는 카레라 S 모델에 비해 전·후방 차축에 가해지는 양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GTS 모델 후면부에는 스모크드 테일 라이트, 블랙 실크 광택의 에어 인테이크 그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의 센트럴

블랙 트윈 테일파이프 등을 기본으로 장착해 디자인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테일 라이트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블랙 트림 스트립은 후륜 구동 모델의 특징인 반면, 라이트 스트립은 사륜 구동 모델 전용이다. 측면부의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미러, 블랙 실크 광택 마감의 센트럴 락이 장착된 20인치 휠, 그리고 도어 부분의 GTS로고는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GTS 모델 최초로 블랙컬러로 제공되는 타르가 바는 '911 타르가' 만의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어낸다.

새로워진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과 고품격 인테리어 장비

GTS모델의 DNA는 인테리어에도 반영되었다.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스톱워치는 대시보드의 중앙구성요소로 통합되었다. 이번 GTS 모델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 기록, 상세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분석 등 '포르쉐 트랙 프리시전 앱(New Porsche Track Precision App)'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새로운 스티칭 패턴이 담긴 알칸타라 소재의 시트는 탑승자에게 안락함을 주며, 헤드레스트에 GTS 로고가 새겨진 스포츠 시트 플러스는 4방향 전동 조절이 가능해 향상된 측면 지지력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블랙 컬러의 양극 처리된 알루미늄 트림 스트립과 알칸타라 소재 장식의 스티어링 휠 림, 센터 콘솔, 팔 받침대 역시 인테리어의 특징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레이싱카 신모델 출시

가장 진보된 신형 911 GT3 컵

상하이. 포르쉐는 신형 911 GT3컵을 2017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한다. 신형 GT3컵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2018년부터 출시된다. 세계 최다 생산량을 자랑하는 GT 레이싱카는 이제 4리터 6기통 수평대향 엔진으로 탁월한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포르쉐의 정통 모터스포츠 기술력이 만들어낸 컴팩트한 직분사 엔진은 최고출력 485 마력(357 kW)을 발휘한다.

더욱 강력해진 엔진 성능은 물론 레이싱 모드 시 자연흡기 엔진의 내구성 개선과 유지비용 감소 등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또한, 단단하게 고정된 로커암으로 이루어진 밸브 드라이브와 중앙 오일 공급 장치가 처음 적용되었으며, 엔진 내 윤활유의 기포 발생을 최소화하는 통합형 오일 원심분리기(integrated oil centrifuge)도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강성이 크게 향상된 크랭크축도 탑재되었다.

새로운 프론트 에이프런과 리어 엔드는 신형 911 GT3컵의 다운포스를 개선시켰으며, 그 결과 접지력과 퍼포먼스 역시 향상됐다. 184cm의 넓은 리어윙은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휠 사이즈 또한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센트럴 록킹 방식이 들어간 프론트 액슬에는 미쉐린의 270mm 레이싱 슬릭 타이어, 리어 액슬에는 310mm, 일체형 18인치 레이싱 림이 장착됐다. 차체에는 인텔리전트 알루미늄-스틸 복합구조를 적용해 높은 강도와 가벼운 차체를 구현했다. 신형 911 GT3 컵은 1,200 kg의 경량화된 무게로 레이스에 출전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엔지니어들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기술력에 적극 투자했다. 드라이버는 견고한 안전 케이지와 머리와 어깨 부분을 특별히 고려한 혁신적인 버킷 스타일의 레이싱 시트로 보호받는다. 가장 최근 FIA 기준에 따라 설계된, 더 넓어진 루프의 구조용 해치는 사고 직후 응급 조치와 회복에 용이하도록 적용됐다.

포르쉐는 스투트가르트-주펜하우젠 메인 공장의 911 로드카와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911 GT3 컵을 생산한다. 기본 레이싱 튜닝은 바이자흐 모터스포츠 센터에서 진행되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에 앞서 프로 레이서에게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된다. 3,133대의 911 GT3컵은 1998년부터 996, 997, 그리고 991 모델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투트가르트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컵 레이싱카는 세계 최다 생산, 최다 판매 GT 레이싱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mages in the Porsche Newsroom (<http://newsroom.porsche.com>) and in the Porsche press data-base (<https://presse.porsche.de>).

연료 소비 및 배출

911 카레라 GTS: 연료소비: 도심연비 12.9–10.7 l/100 km, 고속연비 7.3–6.9 l/100 km, 복합연비 9.4–8.3 l/100 km; CO₂배출 212–188 g/km

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 연료소비: 도심연비 12.9–10.8 l/100 km, 고속연비 7.3–7.0 l/100 km, 복합연비 9.4–8.4 l/100 km; CO₂배출 214–190 g/km

911 카레라 4 GTS: 연료소비: 도심연비 13.0–10.9 l/100 km, 고속연비 7.4–7.1 l/100 km, 복합연비 9.5–8.5 l/100 km; CO₂배출 216–192 g/km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연료소비: 도심연비 13.3–11.2 l/100 km, 고속연비 7.6–7.3 l/100 km, 복합연비 9.7–8.7 l/100 km; CO₂배출 220–196 g/km

911 타르가 4 GTS: 연료소비: 도심연비 13.3–11.2 l/100 km, 고속연비 7.6–7.3 l/100 km, 복합연비 9.7–8.7 l/100 km; CO₂ 배출 220–196 g/km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복합연비 2.9 l/100 km; 복합 에너지 소비 16.2 kWh/100 km; CO₂ 배출 66 g/km

파나메라 4 스포츠 투리스모*: 연료소비: 도심연비 10.0–9.9 l/100 km, 고속연비 6.7–6.6 l/100 km, 복합연비 7.9–7.8 l/100 km; CO₂ 배출 180–178 g/km

파나메라 4S 스포츠 투리스모*: 연료소비: 도심연비 10.4–10.3 l/100 km, 고속연비 6.9–6.8 l/100 km, 복합연비 8.3–8.2 l/100 km; CO₂ 배출 189–187 g/km

파나메라 터보 스포츠 투리스모*: 연료소비: 도심연비 13.1–12.9 l/100 km, 고속연비 7.4–7.3 l/100 km, 복합연비 9.5–9.4 l/100 km; CO₂ 배출 217–215 g/km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복합연비 2.5 l/100 km; 복합 에너지 소비 15.9 kWh/100 km; CO₂ 배출 56 g/km

사용된 타이어 세트에 따른 범위